

건설자재 업계와 소통과 협력, 자재수급 안정화 방안 모색한다

- 14일 골재, 레미콘, 시멘트,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 업계 간담회
...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방안 함께 모색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5월 14일(화)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.
 -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, 레미콘, 시멘트,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,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여,
 -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.
- 최근 건설경기 둔화*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, 고금리, 고물가와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% 상승한 상황이다.
 - *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 약 20% 감소 : 229.7조('22년) → 189.8조('23년)
 - ** 건설공사비지수 : 118.9('20) → 132.3('21) → 146.5('22) → 153.3('23), '20년 대비 28.9% 상승
 - 특히,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,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%, 골재 36%, 레미콘이 32% 수준으로 상승하였다.
 - * 시멘트 : 78,800원/톤 → 112,000원/톤, 레미콘(수도권) : 71,000원/m³ → 93,700원/m³
골재(수도권 부순골재) 14,500원/m³ → 19,800원/m³
 -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업계와 공급자인 자재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-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.

○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,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.

* 건설현장 철근, 강판 등 철강재에 대한 품질관리 시험·검사 절차 구체화

○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기준 강화로 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면서, 원활한 시멘트 공급에 필요한 철도운송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다.

○ 골재업계는 골재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바다골재를 비롯한 골재 채취량 확대, 채취절차 간소화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.

* 조속한 바다골재 채취를 위해 채취허가 주체 일원화, 기간 단축(보통 3년 이상 소요)

○ 레미콘업계는 레미콘의 원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, 골재의 수급과 품질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, 이와 연계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한다.

□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건설업계와 자재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면서, “자재업계가 전달해 주신 건의사항 중 현장 안전과 관련된 점검 확대, 품질관리 기준 개정 등은 조속히 추진하고, 부처 협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”이라면서,

○ “골재, 시멘트를 비롯한 주요 자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급원 확대와 다각화 방안도 검토하겠다”고 밝힐 예정이다.

○ 이어서, “관계부처와 함께 자재업계, 건설업계 등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, 자재 수급 불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”이라면서,

○ “자재업계도 정부와 함께 건설자재 수급 및 품질 관리 등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”며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.

※ 발제 및 건의내용은 사전제출 자료에 기반하였으며, 변경 가능성 있음
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	전인재	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문	(044-201-4585)
			사무관	조규원	(044-201-4365)

